

# 순천시-11곳 병원장 ‘순천형 의료체계’ 구축 논의

### 지역병원 하나로 연결...대학병원급 시스템 구축 협력안 모색 의대 증원 관련 총파업 시 진료시스템 유지 등 선제 대응키로

순천시와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19일 의료계 총파업 시 진료 불편 최소화 대책과 순천형 지역 연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순천시와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노관규 시장과 의료기관장이 간담회를 열어 의료계 총파업 대책과 지역 병원을 하나로 연결해 대학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 순천제일병원, 순천한국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6곳,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 2곳, 전문병원 등 총 11곳의 병원장이 참석했다.

시는 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공백 사전 대비와 시민들이 의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 병원장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도록 당부했다. 또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정주 여건 개선과 응급·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병원을 하나로 연결해 대학병원 역할을 하는 순천형 지역연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오갔다. 박명옥 성가톨릭병원장은 “소아·임산부 응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최종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공

감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병원장들은 순천형 지역연결 의료체계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 진행 중인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역 의료기관 연계·협력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는 8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총파업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현재 의료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장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문제 해결과 의료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도 지역연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가운데) 순천시장이 19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계 총파업 시 진료 불편 최소화 대책과 순천형 지역 연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고흥 우체국 집배원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한다

### 복지 우편 업무협약 맺고 위촉장 3월부터 위기가구 발굴 등 협력

고흥 우체국 집배원들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한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발령산실에서 고흥우체국과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업무 협약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맺고 이날 참석한 집배원에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흥우체국 집배원들은 오는 3월부터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복지등기 우편물을 전하게 된다. 집배원은 위기 징후 가구에 복지정보를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우편을 배달하면서 실거주 여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고흥군은 조사 내용을 반영해 해당 가구에 복지를 지원한다. 고흥지역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복지이장 등 149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공영민(왼쪽 네 번째) 고흥군수가 우체국 집배원들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전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 누구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집배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둔다면 복지 공백이 없는 든든하고 살기 좋은 고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여수시 난임부부 410명에 농산물 꾸러미 제공

### 구입비 지원...3월 25일까지 신청

여수시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난임부부 410명의 신청을 오는 3월25일까지 받는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여수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난임부부 41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자부담(20%) 9만6000원을 내면 48만원어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신선 과일과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공급업체가 대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을 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살고 신청일 현재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가 해당한다. 올해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은 뒤 내년에도 임신하면 같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3월25일까지 서류를 갖춰 주소



여수지역 난임부부에게 지원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여수시 제공>

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이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와 저출산 극복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전문 강사가 어르신에게 키오스크 음식 주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곡성군 제공>

## “어르신들, 키오스크 두려워 마세요”

### 곡성군 다음달 14일부터 활용교육 12개 마을 찾아가 사용법 알려줘

곡성군이 12개 마을을 찾아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준다. ‘키오스크 활용 교육’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목사동면 죽정1구 등 12개 마을회관에서 진행한다. 디지털 전문 강사가 마을회관을 찾아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강사가 태블릿PC를 가져가 카페 음료와 패스

트푸드 주문, 병원 진료 접수, 기차표 예매 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곡성군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 디지털 에듀버스 운영, ITQ 엑셀, 미리캔버스 등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병원이나 음식점 등 일상 곳곳에서 키오스크 이용이 필수가 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키오스크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키오스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순천시 다음달 11~15일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순천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시대가파트 전세사기 피해 구역 안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해 2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월11일부터 15일까지는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업해 상담소를 운영해왔다. 이달 6-8일 사흘간 시대가파트에서 진행한 상담에서는 26건의 신고를 받고, 60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계약을 맺은 뒤에는 반드시 권리 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광양시 중동 수산물유통센터 전경. <광양시 제공>

##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입점자 모집

### 편의점·카페·식당 등 8곳 입점자를 정한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해 12월22일 1층 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1층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키크랩, 바닷가재, 대게, 방어 등 다양한 활어를 살 수 있다. 2층 상차림 식당에서는 1층에서 산 수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 같은 층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다. 이곳에서는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열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해 12월22일 1층 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1층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키크랩, 바닷가재, 대게, 방어 등 다양한 활어를 살 수 있다. 2층 상차림 식당에서는 1층에서 산 수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 같은 층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다. 이곳에서는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열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구례군 경로당 289곳 친환경 쌀 2400포 지원

구례군이 지역 경로당 289곳에 친환경 쌀 2400포(20kg)를 연간 2400포 지원한다. 구례군과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최근 협약을 맺고 구례지역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백일현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맺으면서 구례군은 1포당당 5000

원, 연간 총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 쌀은 구례군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쌀 판로 확대에 농민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보성군 14억 투입 집중호우 재해 예방 구조물

### 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 등 7곳 보성군이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역 7곳에서 산림 재해 예방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우기 전 사방사업(沙防事業)’에는 총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성군은 지난해부터 사전 설계를 시작한 뒤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집중호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방사업은 토양침식이 발생해 집중호우 때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방지·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의 산림재해 예방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계류보전사업은 계곡의 종단기울기를 완화해 계곡물의 속도를 줄여주고 바닥 침식을 막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기존 사방시설에 대해 외관 점검(64개소), 정밀 점검(4개소), 안전진단(2개소)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열, 누수 등 특이 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사방시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매년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사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